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7. 5(목) / 총 6매(본문2)
담당 부서	항공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명주, 사무관 홍승희, 주무관 홍창빈 • ☎ (044) 201-4231, 4230
	항공운항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상수, 사무관 최수영, 주무관 서재윤 • ☎ (044) 201-4273, 4261
	항공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강경범, 주무관 김유철 • ☎ (044) 201-4311, 4286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 및 운항지연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금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지연과 관련하여 항공기 안전, 운항지연, 승객 서비스 등 전 분야를 점검하여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내식 관련 운항지연(1시간 이상 지연)은 7.5일 현재(15시 기준) 0편이며, 일부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여 조종사·승무원 및 모든 승객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.
- * 간편식: 선택 메뉴 단일화 및 기내식 메인요리를 브리또·핫도그 등으로 대체
- 또한, 현재 인천공항 및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·객실·정비 담당 안전감독관(조종 1명, 객실 1명, 정비 2명) 등 총 5명을 파견하여 현장을 점검·통제 중으로,
- 기내식 생산·운반·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, 승무원이 승객 서비스 및 기내 판매행위 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운항지연에 따른 소비자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하여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금번 기내식 사태를 조기 마무리하는 한편, 항공사의 안전·정비·서비스 전 분야를 점검하여 안전소홀이나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7.4 헤럴드경제·경향) >

- ◆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, 국토부 “별 수 없다” 뒷집만
- ◆ 아시아나 기내식 ‘대란’, 서비스 영역이지 ‘안전’ 문제 아니라는 국토부
- 조종사·승무원에 대한 기내식 공급은 안전의 영역에 해당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(서비스)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홍승희 사무관(☎ 044-201-4231),
(안전) 항공운항과 최수영 사무관(☎ 044-201-4273)
(정비) 항공기술과 강경범 사무관(☎ 044-201-43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그간 국토부의 대처내용은?

- 사건발생 직후, 아시아나항공에 원인파악 및 대책강구를 촉구(7.2) 하였고,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공동 모색 중
 - 아울러, 금일 우리 부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내식 제조·운반·저장·탑재의 전 과정을 점검 중에 있음
- 또한, 승무원 안전·부품 돌려막기 등 운항안전과 관련하여 7.4일 부터 안전감독관 4명(조종 1, 객실 1, 정비 2)이 현장조사 중임

2 기내식 공급차질에 따른 항공기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는 없는지?

- 항공기 지연은 1시간 이상 지연편이 어제(7.4)는 2편, 금일(7.5) 오전 0편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임
 - 어제(7.4)부터는 일부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 메인요리를 간편식으로 대체하여 기내식 미탑재 편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
- 이에 따라, 저장·하역 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이 숙달되면 이번 주말쯤 정상화될 전망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

< 아시아나 기내식 관련 지연·미탑재 현황 >

구분	대상편	15분 이상 지연편	1시간 이상 지연편	케이타링 지연시간				기내식 미탑재
				15분~ 1시간	1시간~ 2시간	2시간~ 3시간	3시간 초과	
7.1	79	52	31	21	12	11	8	36
7.2	75	19	7	12	5	2	0	28
7.3	73	6	1	5	1	0	0	43
7.4	79	10	2	8	2	0	0	0
7.5 15:00	41	1	0	1	0	0	0	0

* 간편식을 탑재한 경우도 기내식을 탑재한 경우로 추산

3

**아시아나가 애초에 공급 여력이 적은 업체와 계약해서
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?**

- ☐ 아시아나와 계약한 신규 공급업체의 생산능력의 문제는 아니며,
 - * ‘샤프도앤크’는 1.2만식 자체생산, 1.8만식 외주생산 후 포장(이상 아시아나 공급),
기존 타 항공사 공급량 4천식을 포함하여 1일 3만4천식 취급 중
- 새로운 설비에서의 식자재 보관 및 기내식 저장·포장·하역 등 물류
시스템 문제로 소요시간이 길어져 공급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

4

**이번 사태가 박삼구 회장의 무리한 투자유치로 인해
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는데?**

- ☐ 기내식업체 계약과정에서의 투자 유치문제는 기존 납품업체 주장과
아시아나의 해명내용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,
 - 기존 납품업체의 제소(‘17.8월)로 사실관계를 공정위에서 조사 중

5

**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보상으로
항공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지급 중인데 적절한지?**

- ☐ 우선 사태해결이 급선무이므로,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
기내식 미탑재 및 지연에 따른 배상계획 등을 검토하고
 -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

6

기내식 사태와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조치계획이 있는지?

- ☐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항공안전·정비·서비스 등 전 분야를 점검하고, 항공사의 위법 또는 업무소홀이 발견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
- 아울러, 금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운항지연 결과를 2018년 항공 서비스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예정

7

아시아나항공이 보상차원에서 면세점 쿠폰 등을 지급하면서 승무원들이 면세품을 파느라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?

- ☐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안전감독관을 파견하여 면세품 판매로 인한 안전업무 소홀이 없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하고,
- 매 비행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규정준수를 재강조 중
- * 고도 10,000피트 이하 착륙 준비단계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한 임무 외에 면세품 판매 등 다른 임무 수행불가 (관련규정 : 객실업무교범)

8

운항승무원의 식사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관리·감독이 부실한 것 아닌지?

- ☐ '18. 7. 1~7. 4 기간 중 운항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, 아시아나 741편(7.2, 인천→방콕, 약 5시간) 1편*만 운항승무원 기내식 미탑재
- * 해당승무원 확인결과 비행 전 간단한 요기를 하였고, 운항 중에는 라면 등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다고 진술
- ☐ 7.5(목) 현재 전 노선에 운항승무원 기내식 정상 탑재 중이며, 승무원의 식중독 방지를 위해 기내식만 취식토록 한 규정준수 지시

승객 탑승 중 비상구를 열어 기내식을 탑재한 경우도 있는데, 안전상 문제되는 것 아닌지?

- 기내식은 대부분 승객탑승 전에 탑재 완료하고 있으나, 탑승인원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승객 탑승 후에도 추가탑재가 가능함
- 단, 추가탑재 시 후방쪽 비상구를 주로 이용하며, 사무장 감독 하에 승객 접근금지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여 작업을 진행